

## ‘전교생 1명’ 암태초교 당사분교

### “집 주고 논밭 준대도 아무도 안와요”

인센티브를 약속했어도 도시 지방에 입학하거나 전학은 학생은 없었다. 2일 개학하는 신안 암태초등학교 당사분교는 올해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 재학생은 6학년이 오르는 김정재(13)군 한 명뿐이다.

신안군은 1953년 문을 연 당사 분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지난해 11월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본보 2006년 11월 16일자 8면> 설 내 2만5천여 명의 명을 공동경작지로 내놓고, 가구당 1천 원은 무상대부한다는 내용이다. 농·어업 보조금이나 융자금도 알선하고, 학생에게도 알 등 각종 질병 보장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군은 또 농협과 세대당 4천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협의 중이다. 소유권은 군이 갖되, 신축 주택은 이주민에게 무상제공한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 하루 2회인 여객선 운항 횟수도 늘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도 1학년 신입생은 전무한 상태. 서울·경기·대전·울산 등지에 사는 4세대가 문의했지만 정작 이주해 온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암태초교 박동근 교감은 “분교는 물론이고 본교인 암태초교도 지난해 14명이던 신입생이 올해는 11명으로 줄었다”며 “해마다 졸업생에 비해 입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 자금 등 각종 지원에도 전학·신입생 5년째 1명 없어

당사분교는 지금껏 48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한때 학생 수가 8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마지막 남은 재학생 한 명이 졸업하면 폐교될 운명이다.

한편 전남도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은 2만4천852명. 하지만 여수 화태초등학교 등 1교 33개 분교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 돌산 중앙초·고흥 과역 동초등학교 등 분교 4곳과 여수 소라초 달천분교 등 분교장 11곳은 학생이 없어 올해 문을 닫는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 폭풍에 뒤집힌 열차

중국 서북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지난달 28일 초강력 폭풍으로 달리던 열차의 객차 11량이 탈선하면서 뒤집히는 바람에 승객 3명이 숨지고 3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열차는 우루무치를 떠나 아커수로 가던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의 순간 풍력은 13급에 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 광주 아파트값 충북보다 싸다

### 가구당 1억577만원... 일부 道보다 못해 10채중 7채 1억이하, 투기과열지구 무색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전국 평균은 물론 충북, 제주 등 일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건교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시·도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아파트 평균 거래액은 1억577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광주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와

액수는 4만9천25건에 5조1천853억원이었다.

광주지역 평균 거래액은 다른 광역시인 대전시의 1억6천287만원, 대구시의 1억4천71만원, 인천시의 1억2천633만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액수다. 더구나 제주 1억2천608만원, 충북 1억632만원 등 일부 도 단위 광역단체의 평균 거래액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은 평균 거래가가 2억9천756만원으로 전국 1위

였다. 광주 아파트 3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거래 평균액은 1억6천133만원이었다.

광주에서 지난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3분의 2에 육박하는 68.7%(3만3천686건)가 1억원 이하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1억~3억원 31%(1만4천938건), 3억~6억원 0.8%(397건) 등이었다.

반면 타지역의 1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대전 30%(9천964건) ▲경기 33.8%(12만6천417건) ▲인천 42%(2만6천357건) ▲대구 45%(2만5천198건) 등으로 광주 지역에 비해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의 경우 1억원 이하 아파트는 17%(3만3천778건)에 그친 가운데 1억~3억원이 46.8%(9만2천318건)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3억~6억원도 25.8%(5만914건)를 차지했다.

전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지난해 아파트 평균 거래가는 6천104만원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로 처졌다.

지역민들도 상대적인 집값 불균형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대적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지방 사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희기자 choice@

## 분양원가 지방은 공개 않기로

### 주택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원가공개를 수도권에 한정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택지비를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경매·공매 낙찰가와 공공기관 매입가격을 인정해줄기로 해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토록 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당초 정부는 광주 등 지방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단 수도권에 한해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



3.1절 아침 제42회 광주일보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의 날씨  
맑은 후 흐려짐  
4 / 18℃

“교통 불편  
양해 바랍니다”

광주일보 주최 ‘제42회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오전 9시 10분(포코스, 9시20분 하프코스, 9시30분 10km, 9시40분 5km) 광주월드컵경기장 서문을 출발해 남평읍 광산리 437번지 풀밭한정을 돌아 양북하는 42.195km 코스에서 열립니다. <관전기사 22면> 이번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는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출전, 봄 기운 가득한 광주월드컵경기장 주변과 극락강 일원 순환코스에서 열린 레이스를 펼쳐게 됩니다.

이에따라 대회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일반인 마스터스 참가자가 끝나는 오후 2시 45분까지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에 대한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본사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스를 광주 외곽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 내들이에 지장을 끼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암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www.nambu.ac.kr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www.jinam.ac.kr

진남과학대학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최동원